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社說

에國皇帝의遺憾된決意

一

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 陛下의 佛領지부티로의 避難逃亡에 依하야 首都아디스·아베바는 敗殘兵의 狼藉行爲에 放任된 狀態에 빠젓다. 伊太利軍의 入城도 目睫之間에 迫頭한듯하다. 放火 掠奪은 勿論 敗殘兵의 殘虐貪慾의 所致요 故智의 模倣이 아닐것이나 全市灰燼策에 依하야 나폴레온侵露當時의 모스코의 效果를 내일수가 잇다면 이것은 敗殘兵들의 祖國守護를 爲하야서의 最後의 奉仕라고 할것이다. 우리는 이때에 際하야 開戰二百十有三日間을 두고 寢食을 잇고 砲煙彈雨下에 挺身督戰, 一意, 祖國守護에 當해 온 셀라시에陛下의 過去의 勞를 多라하는 同時에 『最後의 一人까지』의 標語를 實行치 못하고 드디어 他國에의 蒙塵을 行하게 된 陛下 現在의 行爲를 同國을 爲하야 若干遺憾으로생각한다.

二

勿論, 陛下自身의 所言과가티 (一)遷都는 敗戰의 結果가 아니요 戰略上의 理由며 (二)首都陷落은 全國的敗戰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며 (三)에國에는 諸軍을 再糾合하야 最後까지 抗戰할 悲壯한 決意가 잇슬것이다. 우리는 이 悲壯한 決意가 잇슬것을 確信하기때문에 도리어 陛下의 他國領內로의 避難行爲를 一層 더 遺憾으로 생각한다는것이다. 勿論 陛下는 一部에서 傳하는바와 가티 伊에紛爭問題로 因하야 열리라는 聯盟理事會에 親히 出席하야 祖國救援를 爲한 最後의 努力을 試할 決意가 잇슬수도 잇고, 또한 後日, 捲土重來의 再起策을 쓰는데는 伊軍에게 生擒되는 일이 업서야 되겟다는 理由도 잇슬것이나, 첫재로말하면爲先 自身處置부터 難處해하는 聯盟에는 親히 出席해댓자 別數가 업슬것이오, 둘재로 말하면 陛下自身이 苟生之計로써 後日의 再起를 꾀하는것보다는 一死報國의 無形的精神的敎訓에 依하야 將來再起를 計하는것이 도리어 無上의 護國策일것이다. 이 一點에 遺憾이 업지못하나 그가 祖國을 爲한 英雄인데는 틀림업다고할 것이다.

三

何如間 에國의 滅亡은 觀察點如何에 잇서서는 正義의 滅亡으로 보일수도 잇다. 그러나 時間의 單一點, 空間의 單一處를 붓잡어 가지고 이것으로써 곳 이世上에는 正義가 업다고 본는것은 너무 速斷이다. 空間, 時間의 無限을 延長그대로 보면 儼然히 正義가 잇다. 水는 平이 그原則이드시, 人類社會에는 正義가 準則이 되여 잇다. 그러나 數勢를 唯一한 行動의 基準을 삼고 잇든 最近 四五百年間의 西洋人文明, 白人文明에서는 正義의 實行을 期할수업슬 따름이다.

四

따라서 後白人諸國이 今番 에디오피아 滅亡을 坐視한것은 에國이 黑人國이엇기때문이오, 에國이 萬若 白人國이엇다면 白人諸國이 坐視치 안헛슬것이라는 說가튼것은 實로 賴人의 譫[illegible] 價値에도 차지못하는 妄說로 볼것이다. 歐米文明의 白人들은 일직 白人國家를 三分한 例가 잇지 아니한가. 帝國露西亞의 波蘭人에게 對한 殘虐은 史上實例가 드문것이 아니엇든가? 世界大戰에 白人을 다려다가 戰場에 죽인 나라는 어떤 나라이엇든가? 故로 白人諸國의 今番 坐視는 [illegible] 이 맛지 아니하엿기때문이오, 決코 人道上에서 나온것은 아니다 [illegible] 行動을 보라. 故로 이제 萬若, 地理的理由를 드러서 에디오피아로 하여금 白耳義의 位置와 바꾸어 노히엇드라면 滅亡하지 아니하엿스리라고하면 그것은 誤解하는 말일것이다.

戰爭은事實上終焉
問題는英國態度
英外務省六時間동안重要協議
『에』皇帝는英國서保護

【倫敦三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의 出奔이라는 新事態에對하야 英當局은 愼重推移를 注視하고 二日이든 外相을 中心으로 六時間에 亘하야 外務省首腦部會議가 열리엿는데 三日에도 外相은 關係大臣과 協議하고 四日에는 緊急閣議를 開하고 그對策을 協議하게될것이다 에디오피아皇帝는 아디스아베바를 떠나기前에 英公使파톤氏에게 或은 英國으로 亡命할는지도알수업다는 意圖를 披瀝한것이라고 解釋되나 이것은 實現不可能함으로 結局 英領土內에 避難하야 英國政府의 保護를 밧게되리라고 思惟된다 問題는 皇帝떠난後의 에디오피아인데 伊太利는 이것으로 皇帝의 退位라고 看做하고잇스나 組織的抵抗은 업슬터인바 아디스아베바占領으로 戰鬪行爲를 끗막고 나머지 各酋長等의 降服으로 休戰되여 新交涉의 開始를 기다린다고 思惟된다 그러나 이에對하야 英國은 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 問題는 依然英伊의 態度如何에 잇다고 觀測된다

交戰掠奪
首都死滅狀態
敗兵과匪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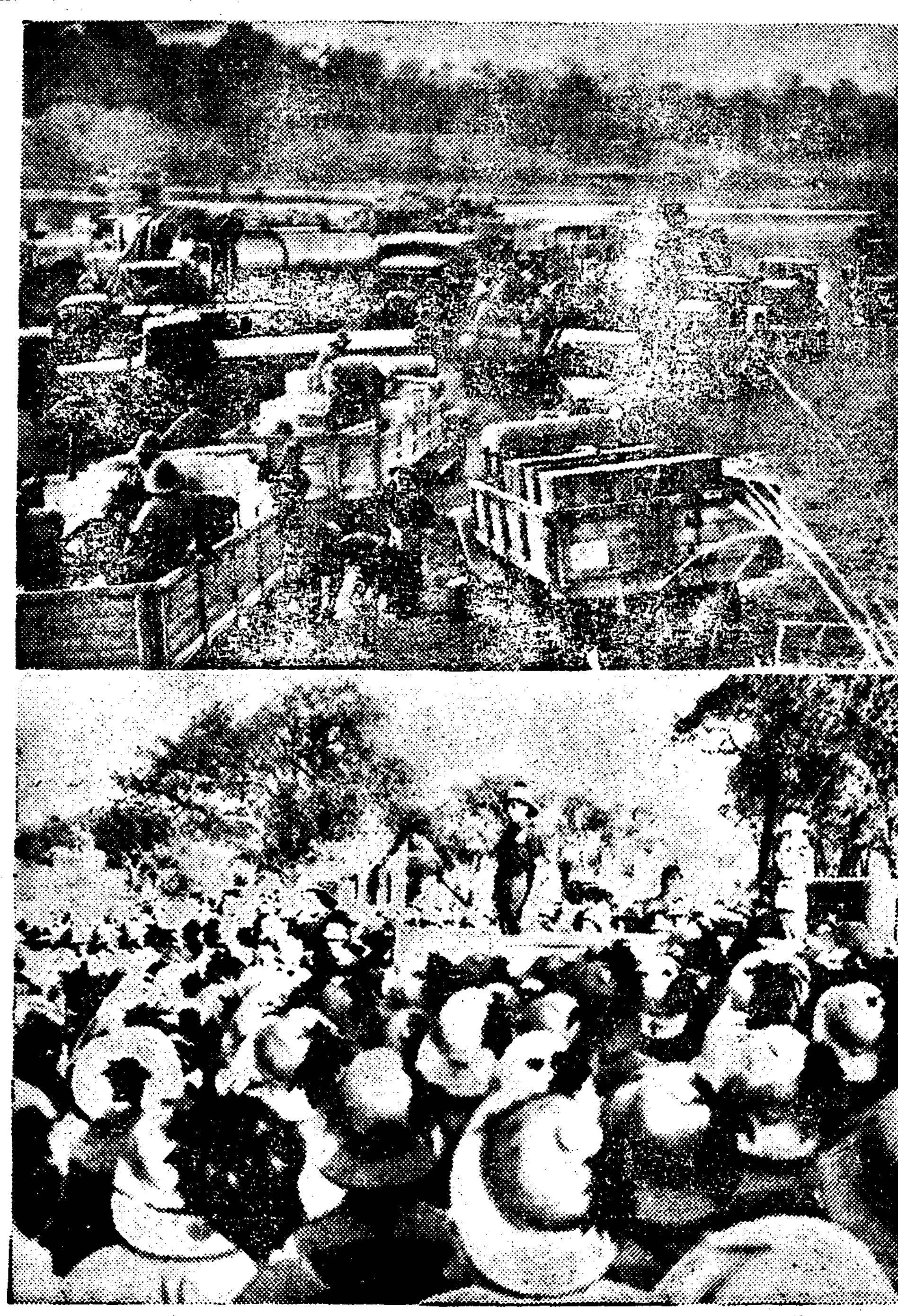
【아디스아베바三日發同盟】皇帝脫出 政府의 撤去로 에디오피아首都 아디스아베바는 文字그대로 大混亂의 渦中에 들게되엿는데 四日 早朝 爾來 北方線戰으로부터 逃入한 에디오피아敗殘兵이 自棄的으로 狂暴의 極을다하야 掠奪을 行하고 匪團과 到處에서 衝突되어 猛烈한 市街戰을 演出하고잇다 此等 暴徒의 大部分은 酒氣를 帶하고잇스므로 兩方이 모도 重[illegible] 內外의 死傷者를 내여 아디스아베바는 死屍로 덥혀잇다 王宮을 爲始하야 市中의 큰 建物은 二日夜부터 全部 掠奪者의 손에 燃燒되고잇스며 大部分은 灰燼에 歸하야 아디스아베바一帶는 焦土로 化하엿다 皇帝亡命後 에디오피아政府의 全權을 掌握한 코·쟈즈·이와소우 一派에 對하야 레자즈·하일將軍이 引率한 一派가 反亂을 이르켜 兩者는 到處에서 衝突되고잇다 一方 外國居留民은 全部郊外에잇는 各自國公使館에 避難하여잇는데 掠奪團約二千은 三日大擧 此를 襲擊하야 公使館側은 아누카리族으로 應戰에 當케하야 겨우 難을 免하엿스나 敵彈으로 外人側에 負傷者三名을내이고 騷擾求景次로 京中에나갓든 白人二名은 行衛不明으로되여 그 安否는 자못念慮되여잇다 海外에로의 通信連絡은 全혀杜絕되엿고 公使館의無電이 唯一의情報機關으로 되여잇다

外人死傷二十四名

【아디스아베바三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의 蒙塵에 뒤니어 首都騷亂으로 歐洲人居留民의 死傷者數는 二十四名에 達하엿다

首都治安維持를
佛首相, 伊에要請
駐에國佛公使가打電

【巴里三日發電通】에디오피아皇帝가 退去한以來 아디스아베바는 惡鬼夜行하는 狀態로 暴徒는 到處에서 出沒하야 掠奪暴行을 行하고잇는데 被害는 마침내 在留外人에까지 及한模樣이다 同地駐箚佛國公使 포달氏는 三日本國政府에 急電을보내여 暴徒는 佛國公使館을 襲擊하고 避難中인 알메니아人二名을 殺害하엿다는 旨를 報告하고 『至急救助手段을 講究하라』고 要請하여왓다 이急電을接한 플랑당外相은 뭇솔리니首相에게 親電을 發하야 一刻이라도 速히 伊太利軍에 依하야 아디스아베바市內의治安을 恢復하고 在留外人의生命財產을 保護하도록 마련하라고 懇請하엿다 이에對하야 뭇솔리니首相으로 急速返電이 到着되엿는데 이에依하면 羅馬政府는 伊太利軍總司令바도리오將軍에 對하야 될수잇는대로 速히 아디스아베바를 手中에 너토록 電命을 發하엿다한다



에首都로進軍하는 伊太利快速部隊 — 伊에紛爭에잇서 空軍과함께 가장 큰 効果를나타낸것은 機械化部隊이다 裝甲車를 自由로疾驅하야 猛烈히 攻擊하여드러오는 이怪物과 機械化兵團으로된 自動車部隊앞에는 無敵한 에디오피아兵士도 束手無策하엿든것이다。 寫眞上은 北部戰線의 要地곤달을 占領한 伊軍탕크、自動車隊가 아디스아베바로 進擊할 準備를하고잇는光景 下는 곤달을 占領한 파시스트軍團에 向하야 슈드라스將軍이 訓示를내리는 光景

議會消息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은 開院式終了後 四日午前十一時三十分 勅語奉答文을 起草키爲하야 同三十五分 本會議를開會하고 開院式에際하야 特히 優渥한 勅語를 拜受한 議員一同은 [illegible] 正裝으로 一段[illegible] 議場에 [illegible] 의右側에 [illegible] 버리고잇는 社大衆議員의 [illegible] 를 띠우고잇다

富田議長 本日第六十九回帝國議會開院式에 際하야 天皇陛下께서 [illegible] 勅語를 拜受하엿다 [illegible] 奉答文을 起草하려한다 고述하고 入本[illegible]氏(民政)外十七名의 奉答文起草委員을 議長이 指名하고 同四十分 一日休憩하엿다

【東京電話同盟】衆議院 本會議는 四日午後三時三十分 開會하고 午前에 [illegible] 奉答文起草委員會에서 [illegible] 四時間동안 休憩 [illegible] 富田議長의 [illegible] 奉答文案을 [illegible] 入本[illegible](民政)가 [illegible] 四時間에 [illegible] 報告하고 [illegible] 入木氏 特히 [illegible]「[illegible]」[illegible] 는 旨를 述하고 [illegible]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四日午前十時十五分 院內 大臣室에서 臨時閣議를 열고 左의 [illegible]案을 議會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一、[illegible]法案
一、[illegible]法案
一、昭和十一年勅令第十八號(二[illegible]) 戒嚴令中 必要한 規定을 適用하는件 承諾案
一、昭和十一年勅令第二十一號(東京陸軍軍法會議에 關한件) 承諾案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會大衆黨의 共同提案인 [illegible] 決議案은 豫定대로 四日開院式後 衆議院에 提出되엿다 따라 그上程에 對하여는 近近 議長及 政民兩黨에 對하야 交涉할터이다

對에政策에關해
뭇首相會議召集

【羅馬三日發電通】뭇솔리니伊首相은 에디오피아首都占領이 確定한事實로되엿슴으로 四日午後四時부터 會議를 召集하고 今後對에디오피아政策에關하야 重要聲明을 發하기로되엿다

歐洲各地에國公使
本國首都로集合
休戰講和交涉進行次

【羅馬三日發同盟】伊太利軍의 아디스아베바入城과 함께 勝敗의 數는 이것으로 決定될터인데 伊太利政府는 首都占領後 에디오피아代表와의 間에 休戰講和交涉을 開始하리라고 解釋된다 右交涉을爲하야 歐洲各地駐箚에國公使의 數名은 近近任地로부터 아디스아베바로 集合하리라는 說이 有力하다

時事漫畫 — 勝利萬歲! 正義는 武力에 屈伏되엿다

青年團指導의
劃期的方針
政務總監名義로서發布

都市와 農村에서 社會의中堅層으로 活潑한 活動을 繼續하면서 農村振興、心田開發等 國民的運動의 先鋒으로 實踐的使命을 帶하게된 全朝鮮의 青年團指導에 關하야는 새로운方向을 指示할 必要를 認定하고 過般來 學務局을 中心으로 그具體案作成을 急히하고잇는데 마침내 總督, 總監의 決裁를 經由하야 四日 今井田政務總監의名義로 各道知事에게 通牒을 發하야 青年團의 活動에 劃期的使命을 與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內容은 旣報와如히

一、指導基準으로 國體觀念의明徵 敬神崇祖 報恩感謝 勤勞好愛 信仰生活 心身鍛鍊 鄕土愛涵養 團體的訓練 產業指導 敎化機關과의連絡 地方的美風의助長과弊風矯正 等이 中心으로 組織 年齡 役員 事業 維持方法等 其他七項에 亘하야 全般에亘한 指針을 具體的으로 明示하엿다

通牒全文內容

今四日 今井田政務總監으로부터 各道知事에게 發한 青年團指導方針에關한 通牒全文은左와如하다

政務總監通牒과함께 學務局長으로부터 精細通牒하여 두엇스나 時局의 推移는 爾來世運의 進展과 促함으로 그經營과 指導도 漸次 實勢를加하고잇다는것은 一般이 認識하는바이나 方今社會의情勢는 그 指導強化下에 가장 適切한機運을 齎來하리라고 思惟될뿐만 아니라 今後 四半世紀에 잇서서는 從來보담 一層 國民的 資質의 向上에 注力할 必要가 잇다. 即 此際 青年團의 普及及 其指導獎勵에 一段考慮하야 農山漁村의振興及 敎化에 關한 一般施設의 效果의擧揚은 勿論 國際競爭場裡에 日本의基礎를 堅實케하야 毅然 國家活力의 源泉이될 青年의 修養努力에 俟할바가 만흠을自覺케하고 또 青年團指導의任에當하는 者는 國體의本義와 世界의大勢를 몰보아 이에適應한 바를 闡明하고 青年의 心理를 把握하야 그觸發을 그르되게 하지안키를 期할것이다 萬若 青年으로 小成에安으며 經濟界가 漸次 好轉됨에 伴하야 放慢浮華의 風에 流하고과 如한것은 國家의 健全한 發展을 阻害함이 가장 憂慮할것임으로 特히 玆에留意하야 操守를 堅固히하야 奢侈를 斥하고 質實剛健의 氣風을 振興식히도록 努力함이 가장 緊要하다 따라 青年團指導統制上 從來의 經驗에 鑑하야 團의 指導 基本組織의 範圍 役員의 選任等에 特히 考慮하야 새로方針을 指示하게 된것이다

即 青年團의 指導統制는 今本要項에 依하야 이를實行할 것이며 더욱 都市에잇서 青年團에 對하여는 이에 依하는 外에 그特殊事情을 參酌하야 適當한 方法을 加味하야써所期의 效果를 收하도록 努力할것이다

陸軍側의意向
行政機構改革에對한

【東京電話同盟】國政一新을 目標로한 現內閣의 積極的邁進은 特別議會가 終了됨을 기다려 本格化할것이라고 陸軍側에서는 期待하고잇는데 이에 對하야 陸軍側의 意見을 綜合하면

一、機構改革이 先決問題이므로 爲先 內閣調査局의 機構를 改組擴大하는同時에 無任所大臣을 任命하야 이에 參加케하고 또 調査局首腦部의 權限을 各省大臣과 同程度로할것

一、其他各省의 改廢統合新設等은 調査局으로하여곰 革新的 一般國策의 研究樹立과 並行하야 立案케할것

에잇다고한다

廣東方面에俄然
英國資本大進出
製鐵外綿、毛、麻織物三大工場開設計畫
리特使繼續活動中

【香港三日發電通】過般 英國特使 레이드로스氏가 廣東訪問中에 劃策한 英中經濟提携도 漸次具體化하고잇는 形勢로 보이는此際 最近 英國資本의 廣東進出이 俄然 進展되것은 極히 注目할만하다 即 製鐵所開設計畫調印에 뒤이어 英國側은 다시 綿織物 毛織物 麻織物의 三大工場開設計畫에 成功하야 昨二日 廣東政府와의 間에 調印을 終了하엿는데 綿毛兩工場은 풀라트兄弟商會가 麻織物工場은 제임스마키 父子商會가 責任及 機械一切를 引受하엿고 또 右三工場에 動力을 供給할 電力會社도 倫敦의 쿠스톤 호스로社에 依하야 設立할터인데 各工場은 모도 最短期間內에 起工할豫定이다 그리고 英國의 製鐵所에對抗하야 資本國도 廣東軍部에 兵器廠開設計畫案을 提出하고 目下兩者間에 交涉中이라고觀測된다

伊軍의首都占領不拘
權益의萬全企圖
外務省의自主的對策

【東京電話同盟】伊太利遠征軍의 아디스아베바入城으로 에디오피아政府機構의 徹底的再建은 必至의情勢인데 日本外務當局은 伊太利政府의 政治工作에 關하야 細心注意하고잇다 即 에디오피아는 日本과 修交通商條約이 잇는 나라이며 日本은 이에 通商上其他諸權益을 갓고잇슴으로 伊太利의 態度에 關하야 重大關心을 가지지안흘수 업다 그리고 에디오피아가 伊太利의 植民地로 化하거나 또는 [illegible] 將來 에디오피아에 [illegible] 本政府는 [illegible]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illegible] 對한 外交上聲明에 [illegible] 피아自體에 對하야 同時에 伊太利에 向하야 行動함으로 聯盟과 如한것과는 無關係로 獨自의 見解에 依하야 自主獨立的으로 에디오피아에 잇는 日本의 一切權益을 擁護하기 爲하야 萬般措置를 講究하기로 根本方針을 決定하엿다

伊太利全土에
戰捷祝賀會開催

【羅馬三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의 蒙塵이 目前에 迫頭되여 伊太利政府當局은 戰捷祝賀의 準備에 着手하고잇다 그리고 南方라스나레브 [illegible] 抵抗하든 고헤도·大勢를 左右치못할것임으로 伊太利政府는 戰捷을 [illegible] 一方 全國民은 狂喜亂舞하야 바야흐로 休戰命令과 [illegible] 를 發하고 來週全國的으로 戰捷祝賀會를 開催할 豫定인데 各新聞도 紙上에 東阿征服工作의 成果를 禮讚하야 [illegible] 對伊經濟制裁를 撤回하라 그러치안흐면 全歐洲에 戰爭이 勃發할것이다」라고 豪語하고잇다

夕刊後市況 四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五七〇	(不變)
鐘新	一五二〇	(一〇高)
日產	六八五〇	(不變)
東新	一三〇五〇	(一〇高)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七四九〇〇 先限 七一九〇〇

◆前井 人絹 後引◆ 當限 大四七〇 先限 大三一〇

憲兵隊異動 (朝鮮關係)

橫濱憲兵分隊長 憲兵大尉 大田淸一
補京城憲兵分隊長
朝鮮憲兵隊副官 憲兵大尉 小野 礼
補羅津憲兵分隊長
大邱憲兵分隊長 憲兵大尉 中山 隆禮
補朝鮮憲兵隊副官
羅津憲兵分隊長 憲兵中尉 色川勝之助
補大邱憲兵分隊長
新義州憲兵分隊長 憲兵少佐 赤藤 庄次
免本職
三島憲兵分隊長 憲兵大尉 宮內 善則
補新義州憲兵分隊長

人事·集會

▲韓京洙氏(醫學博士)開業人事次來社
▲鄭鎭燮氏(本社記者)五日淸州郡南一面[illegible]山里自宅에서 遭祖父喪

非常時突破의힘

生命保險契約高의增加는非常時를突破하는民力의根底를튼튼케하는것입니다。

日本生命은年初以來僅僅三個月에어느듯新契約一億一千餘萬圓、三月末現在總契約高十八億五千餘萬圓에達하엿스며、百三十餘萬加入者의絕大한信任下에躍進的發展을거듭하고잇습니다。

生命保險加入에는特히가장信用이두터운會社를選擇하는것이必要합니다。

(營業案內贈呈)

最優한故로最大함니다

日本生命

大阪市東區今橋四丁目

高啓學院遂勝訴
鐵原高富豪를相對한
土地所有權移轉請求訴訟歸結

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普校)를 경영하고잇는 재단법인 고계학원(高啓學院)에서 소완규(蘇完奎) 리승우(李升雨)두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하야 강원도 철원읍(鐵原邑)에 사는 고중권(高重權) 고희원(高熙源) 한보임(韓保任)등 세명, (피고측소송대리인 김병로(金炳魯) 권승렬(權承烈) 두변호사)을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송중이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약백여마평에 일년조수 이천여석)및 소작료인도(小作料引渡)청구의 소송은 사일 도변(渡邊)재판장으로부터 원고 고계학원에 승소(勝訴)의 판결이 나렷다

이사건은 피고측으로부터 사오차의 증인신청(證人申請)과 연기전술(延期戰術)등으로 오랫동안 끄으러오든것이엿는데 피고측의 여러차례의 증인증거제출도 결국법의 재단에는 아모소득이업게되고 사필귀정으로마츰내 정정당당한 판결이 나리고 만것이다

그러고 이사건을 중심으로피고측을 둘러싼 책동분자들은 고계학원의 신성한 공유사업들은 근히방해하려하는 행위도 잇섯스나 정의(正義)압에는모든사악(邪惡)이 다 물러가고 만것이라한다

原·被告側關係者談

事必歸正
高啓學院設立責任者 吳晴氏談

고계학원에서 승소하엿다고요 정의가잇다면 불순한 무리의책동이 용납될리 만무한것이니까그야신성한 법의 공정한판단으로서 당연한귀결이겟지요。피고측의중수겨인 이인(李仁)군으로말하면 고명한법률가일뿐더러 명사로 자처하는사람이니까 설혹 일시적착각으로 그동안 모든책동을하엿다고 하더라도 량심이잇다면 과거의 잘못을깨달을것이외다。비롯도 압흐로 온갓책동을 한댓자 별도리가업슬것이외다。그동안에도 이인군으로부터 김병로(金炳魯) 변호사를통하야화해의 알선을 나에게청한일도 여러번잇섯스나 자긔와자긔일파가 갑부로드려오랴고 하기때문에 화해가되지못하엿습니다 고계학원은 고계하씨의긔념사업으로서 설립된재단이나 반드시 그의유족만이 갑부로되여야할필요도 업슬것이며 오히려공평한 제삼자에게 맷겨서 사업을경영케하는것이 더욱 의의잇는줄로생각합니다。그리하야 나도간부가되지안흘것인데 더구나 이때것 반대하여오든 인물에게 재단을 맷긴다는것은 위험천만일뿐더러 지하에 잇는 고계하(高啓河)씨의령도 용서치안흘것이외다 현갑부중에도 고씨의유족이 두사람이나잇슴으로 전면히남에게 맷겻다고도 할수업겟지요 그동안 우리사회의 소위지도계급인체하는 몃몃야심가들이 이재단을 탈취하라고 한편으로 온갓책동을하면서 한편으로 여러가지 풍설을유포하는일도잇섯스나 사회의정론이 잇슬것이니까 이에대한 자세한말은 하고십지도안습니다。운운

李仁氏談 나는 이사건에 아모상관도 업습니다 이겻거나 젓거나 나에게는 상관업는일입니다 아마 패소한 피고측에서 공소(控訴)하게되겟지요

蘇、李兩辯護士談 우리는 이사건은 처음부터 당연히 올흘의 결과를 나타낼줄로미덧습니다 이제 승소의 판결이나렷다해서 새삼스러히 이러니 저러니 떠말할꺼리도 업습니다 그저법률은 당연한 판단을내리웟다고 할것밧게 업습니다

金炳魯辯護士談 이사건 소송진행도중에 우리피고측에서 고계학원설립책임자 오청(吳晴)씨에게 화해를 청한 일이 잇습니다 이사건에 관계되는 재산은 오십만원이나 되는데 오십만원까지지나 내노흘것업시 피고측에서 이십만원가량 내노하가지고 청원 고씨(高氏)집안사람들을 중심으로하야 서울서 보성고등학교를 경영하지말고 철원에 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는것이 조흔양으로 이야기한적이 잇습니다 공소(控訴)는 물론 상고(上告)까지라도 할 작정이올시다

普成高普金校長談 우리보성고등학교를 재단법인 고계학원에 경영권을 맛기게된것은 처음부터 다른지망자에게 맛기기보다도 훨신튼튼히질 경영하게되리라는 신념으로 맛기게된것이고 그저한부로 맛길것이아님니다 경영권을 맛겨달라는 다른 지망자도 잇섯지마는 그것은 다물리치고 오직우리의 미듬잇는 고계학원에 맛긴것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은 피고들이 아모리 억설을 부려서 항거하드라도 필경은 바른길로 귀결될줄로 미더왓는데 이제 승소의 판결이 나렷다하니 기뿜을 이루다 말할수업습니다

夜來風雨聲 花落知多少

이삼일동안 계속하는 따뜻한날세에 창경원에 만개되엿든 벗꼿도 벌서 한고개를 너머 하얀잎 두엽씩 떨어지기 시작하야 꼿손피어 절정지나는 감을 새삼스러히 못참게하려할때 사일 오후두시쯤부터 화발다풍우(花發多風雨)격으로 난데업는 느진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며 그러지안해도 떠러저가는 벗꼿송이를 여지업시 재촉질하야 가작히 땅우에다도 꼿을 피우게하엿다 모처럼 보려고 벼르든 꼿이 비바람에 모다 지는것을 애석히 여겨 또는 꼿잎날리는 광경을 가벼히 밟으면서 아려우로이어 어우러진 꼿을 구경하고저 비오는데도 우산을밧고 창경원에는 구경군이 약 삼백명가량이나 모혀들엇다하며 걷은 우산우에 떠러지는 꼿의 한입 두입 그것은 사람의 서로튼 솜씨를 빌지안흔 자연의 『우산화』(雨傘花)라고나 할까 펄펄 떠러지는듯치 압흐로 삼사일은 더 구경군의 흥취를 도를터로 창경원 야앵은 오는 칠일밤까지 계속개방한다고한다

新農博禹長春氏

【東京電話】조선사람으로최초의 농학박사(農學博士)가생겻는데 그는 경성부 영락정(永樂町)이정목이번지에 원적을둔 우장춘(禹長春)(三七)씨이다 대정팔년에 동경농학부실과를 마치고 동경농사시험소긔수에 임명되엿다가 그후더정식으로 긔우원종육연구소(埼玉縣北足立郡)에 잇는 현원종시지원장에 전근되여 유채(油菜)의 연구에몰두하야 지난사일부로 농학박사의학위를 어더엇다한다

남의免許狀으로
버젓한 運轉手노릇
書換하라다가마침내發覺

다른사람의 면허장(免許狀)을가지고 사오년동안 자동차 운전수노릇을 하다가 면허장이 다 떠러지니까 시청을 떡떼고 동대문서에 재교부신청(再交付申請)을 한것이 필자의 마지막이되여 사일오전열한시경에 드디여 동서원에게 체포되여온 대담한 청년이잇다 — 시내 전농정(典農町)륙백삼번지 문경옥(文敬玉)(二七)은 허석귀(許石貴)(二라는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장 경긔도 제오백팔십구호를 작년봄에 어더가지고는 면허장에 첨부되여잇는 허석귀의 사진의 목우이를 잘너버리고 승직 자긔 얼골을 부친다음 이름도 긁거버리고 자긔의 일홈을써가지고는 이때까지 버젓한 자동차운전수노릇을 하다가 약일년전부터는 시내파회문 //박씨//운전수노릇을 하야왓다는데 이친구는 지난사일 이십사일 동대문서에 면허장서환(免許狀書換)을 신청하니 동서에서는 이것을경긔도 보안과(保安課)에보내엿다고한다 보안과에서는 면허대장(免許臺帳)을조사하야보니 그런사람은 도모지등록된일이업는사실을 발견하자 이대담한사나히의죄상은 마침내나타나게되엿다고한다 이리하야동대문서에서는 전긔문경옥을 공문서위조(公文書僞造)로 엄중취조를하게되엿다고한다

團體往來 (四日京城驛調)

▲主催 로쓰안젤스 商工會議所 世界觀光團 二十五名 午後三時十分入京
▲主催 安東公署 日本商工觀察團 十九名 午後三時十分入京 同七時二十五分退京
▲主催 哈爾濱 륜리스뷰로 訪日視察團 二十一名
▲主催 滿洲國遼陽縣 官民訪日團 三十一名 午前十時三十五分入京 午後二時五分退京

貧困兒童에게福音
公立簡易校設置說
府內卅餘講習院도善導擴充
京城府의入學緩和策

경성부의 조선인측 보통교육문제는 대경성으로 행정구역이확장되면서 더욱 다난하게되엿다 금년에 각보통학교입학련 입학지원자는 일만여명이나 되엿는데 입학된아동은 겨우그절반인 오천명밧게못되고 그남어지 오천명중에서 일부는 사립보통학교기타에 들어가고도 약삼천명은 오도가도못하고 놀리게된것은 큰문제이어서 래년에는 어떠케하여서던지 지원자의 전원을 모다 수용토록 그방책에대하야 부당국자와 부회의원들이 연구중이다 그런데 이문제밧게 또중요한 문제가잇스니 그것은 보통학교에 지원도하기 어려운 가정의 무수한 문맹아동들이다 죽한달에 륙칠십전의 월사금기타서적을 사는학비가 업서서 학교에지원도 못하는것이 무수히잇스니 이들을어떠케하여서 문맹지옥에서 구해내일것이냐 하는문제에 대하여 부학무과에서는 작년중에간이(簡易)보통학교를세워가지고 이개년간에 보통학교사학년 졸업정도의 실력을 부치주도록 하자고 계획하엿스나 경긔도당국에서 간이학교는농촌에서 하게하는것이 잇다고하야설치인가하되여 예산을 어들수업서서그대로 계획이좌절되고 말엇는데그후 경긔도당국에서도다소 량해된모양이고 총독부당국에서도 간이학교는 도시에서도 절대필요하라라는견해를 가지게된 모양으로 경성부에서는 부내에 속히 간이학교를 설치하여 문맹지옥에 빠지어 할일업시학령을 넘긴 아동을 교육식힐방침을 가지고 속히 그실현을보도록하려는중이다 이와동시에문제되는것은 현재구시내와 새로편입되구역을 통하여 보통학교정도의강습원이약삼십여개소에 수천아동이잇서서 설비며 기타 내용이 불충분하나마 아동교육에 적지안흔 공헌을하고잇는데 이것들도 그대로 방임할수는 업스므로 현재 초등교육긔관이 부족한이상 적당히 지도하면 더 효과를 어들것이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지도할 모양인데 정규의 보통학교 교육을 못밧는 아동들을 위하여 간이학교류의 신설과 기타 사립강습소등의 지도개선은 장차 크게 효과를 어들 중요한 문제로 식자의 주의를 끌고 잇다。

京阪神朝鮮人問題座談會 ⑤
借家難은致命의打擊
朝鮮語文도大飢饉
▽實社會에競爭함에重大한兩大問題
朝鮮사람임으로밧는苦憫

▲鄭南局 도항문제에 대하야 제가한말슴하겟습니다 월전 고향사람이 사개월전에 귀향하엿다가 일시귀선증명의 가한은 다지나고 또고향에서는 증명을 아니내주기에 부득이 밀항하여서 대판에 왓댓는데 이곳에는 처자가 다잇습니다 그러나 밀항하엿다고 경찰에 검거됨으로 여러친고와 그사람을 노아달나고 진정서(陳情書)를 내엇더니 그까닭에 진정운동한사람중에 이주일이나 구금되엿던일도 잇슴뿐외라 또 그런운동을하면 조선으로 송환시킨다고 을러댑니다 이런입니까 조금 거슬리면 당국에서는 이곳에 둘수업스니 조선으로 송환시킨다고합니다 이문제로 여간 동포들이 공포를가지지아니합니다

▲金支局長 주택문제에 대하여서 말슴해주시지요

▲李元[illegible] 일한병이후 이곳에처음왓슬때는 매우집을 잘빌려주엇습니다 중간에 악화된것은 민족적 수치도 모르고뿌로커의 집장사들까닭에 집세잘안낸다고 조선사람 이라면 집을 잘아니줍니다 도회상식이적고 도언어가 달은데다가 빈곤히 살자니 다소불결함으로 그들의 실현함을 바겟지요 그러나 지금에는 오히려 조선사람이 잘냅니다마는 세상에 집엇기가티 어려운것이 더업겟지요 그럼으로 어든집가지고 이사갈때에 서로매매하는 폐단까지 생깁니다

▲金亮才 제가 대정십오년도에올때는 신호에는 조선사람이살림하는집은 몃집업섯습니다그후차차 살길을 차저 이곳에 만히 건너오게되매 혼자는잇슬수 업게됨으로 처자를다려오게 되여서 집어들 사람이 만히늘어갑니다 일본내지인들이 집을 잘아니주는 원인을 물엇더니 첫재 적은집에 두세집이 사는것 또 떠든다、공동수도에 불결하게하며 집주인의 승낙업시 마음대로 곳치는것이라고 하기에 우리들도 공기조곤、조용한곳을 아니 조회할리야 잇는가마는 이곳사람들이 집을 잘아니빌려주니 한데(屋外)는 살수업고 부득이 서로 친소친소를 차저모이니 그러치아니한가고 하엿스나 그러나 우리의 불찰도 만흐니 반성할점도 만습니다。

▲申應熙 무의식적으로 차가(借家)차아니하기로하고 또든 의식적으로도 조선사람이라고 아니빌려도줍니다 조선사람이일본사람이라고속이고 집을빌리는사람이 만히잇는데 경찰에서는 간간히 간섭이심합니다 차라리 이문제는 중대한만큼 위정당국에서 성의잇게 근본문제를 해결하여주지아니하여서는 아니되겟습니다

▲李[illegible] 주택난은 차별정책의부산물입니다 과거는 조흔일를면 귀국할려고하엿고 지금와서는 될수잇스면 이곳에영주하려고합니다 위정당국에서는 이와반대정책을 쓰고잇습니다 그러므로 도항처지라던지 차가문제에도 간섭이 심합니다 다른것은 모르나 대판에서는 『가주』(家主)협회라는것이조직되여서 가주협회 회원으로서 조선사람에게 집을빌려줄때에는 벌금백원을 밧기로되여잇습니다 이것이 인도문제상(人道問題上)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혀 위정당국에서는불문에부치고잇습니다 그리고집을잘엇지못하는것을 기화로 소위××유화업자들은 집장사를하며 중간착취를하고잇습니다 직공을 모집하는데는 광고를붓처도 내지인에게 한다고써서 조선로동자를 차별합니다 업는사람으로서 고향에도라갓자 별소용이 업슴으로 이곳에 토착민이되려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모든 억압이더심합니다 이주택문제는 엇더한 방침으로라도 속히 해결하여야될문제입니다

▲鄭[illegible]局長 자제교육문제에대하야 두어말뭇고저합니다 대판읍을은바에의하면 소학교에다니는 아동만이 일만칠백명이나되고 쯔루바시제사 소학교(鶴橋第四小學校)에는 한학교에조선아동만 삼백사십칠명이나된다하니 이곳은의무교육이실시되여잇스니 입학난은 업슬것이나 한글(朝鮮文)교양에대하여서는 엇더케하시는지 말슴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金[illegible] 의가여러분께서 다말슴하신것이지만은 우리가 다소는 위생관념이 박약함으로 이곳사람들에게배척을 바더 차가문제에도 한조건이되니우리가반성하야 고칠것은 하로속히 곳처야 되겟슴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문화향상에 대하야 노력하여야 되겟는데 아곳에와잇는 아동은 학교에입학시키는것은 쉬우나 조선말과 한글을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신문한장이라도 볼만치나 가르처노하야 될것인데 강습소나 야학을 못하게하니 계몽운동을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조선내지와 상취인(商取引)관계며 서신관계상 더욱 조선어를 가르처야될것인데 이것이 재주동포의 장래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廉[illegible]一 아동교육이 제일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자기부모들이 열심으로 집에서 가라칠수밧게 업습니다 그리고야학이라도 시켜서 조선말을가르치도록 하여야 되겟습니다

▲金俊玉 조선어의 부족으로 곤난을 늣긴바를 말하겟습니다 중학과 전문등을 이곳에서 맛치고 일본사람과 접촉을 만히하는관계상 조선말을 만히 이저버립니다 대판에서 관대에서는(關西大學)한오십명잇슨데조선학생이 고나온대자 조선글로 감상문을하나를 올케쓰는사람이 명몃되나 그런관계상 엇던때는 조선사람으로서 조선사람아니란하는수가잇습니다 그리유는 조선말을잘몰라서 그리하는수도잇습니다 간신문사에서도 일본내지에 순회강좌(巡廻講座)가튼것을 개시하여서 조선어를 만히 보급시켜주시면 조켓습니다

運動競技

朝鮮籠協任員會 審判其他를協議

朝鮮籠球協會에서는 來六日부터 鐘路中央基督靑年會館 코-트에서 열릴 第六回中等校及俱樂部籠球聯盟戰을 압두고 四日午後七時半부터 鐘路一丁目 同會館內에서 任員會를 열고 審判問題及 其外 重要事項을 討議한後 同十時頃에 散會하얏다。

아마拳鬪聯盟常務會

全朝鮮아마추어拳鬪聯盟 常務委員會와 同委員會는 昨四日 午後八時부터 黃金町一丁目 同聯盟事務所에서 열고 다음과가튼 事項을 協議決定한後 十時半에 散會하엿다
一、東京選手派遣報告
一、東京派遣選手試合經過報告
一、代表委員會開催의件
一、아마拳鬪聯盟及四新聞社運動記者團共同主催로 來七日午後六時明月館에서 李奎滲取送別會를開催할件(會費一圓五十錢當日持參)
一、適當한時日에 東京留學生拳鬪選手招聘의件

今日의運動

▲野球=春季리-그戰第三日(京電對殖銀決勝) 午後四時半 京城球場

(壹萬劑限一割式)
代金全額後拂
不老長壽, 强精回春
●百補丸은 東西洋補藥中最極上 第一完全 第一조흔 絕對無上効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早○가 完全히 낫고 筋骨이 든든하여지고 체중이업서지고 腎氣不足이니 腎水不足이니 하는 생각은 夢中에도 안이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年이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 補藥이 어데잇습니가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의 效力을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스실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서요
人生에急大問題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저아니하면 그나무가 엇더케됩니까
●사람이 性慾이줄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티 悲慘하게 됩니다
百補丸의 藥效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爲先手足과 下焦가 몹시 가벼워집니다
二、精力이 精水가더 每日每日느려서 事務는 自然不知中 만히보게되며 深夜徹夜로록 不眠勞力하여도 翌朝에 無難히 早起하게됨니다 是果然百補之然由効力偉大之論
三、飮食을 自然히 만히 잡수시게되며 체중가는것은 어느때엇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업서집니다
四、一週日만連服하면 ○○가튼性○이不知中○되며 連服하면 用之不渴精源이 如泉하며 玉壽仙風 皮膚에 주름살이펴지며不老更少年이되며 ○○과○○두가지 人生最大의欲望을 必히 滿足하게되며 永久히 幸福한身體의 所有者가될것입니다
五、遠山松葉散을 能히세일듯 百補丸을 服用하기始作한지 五日間만지나도 몸이漸次輕快하여지며 遠山의松葉散을 能히세일듯한氣分이 生합니다 이것은 特히 精氣, 腦氣가 훨신培養되까닭이며 몸이 輕하야지는것은 體重이 減하여진것이아니요 筋骨이튼튼하여지는까닭입니다
六、體質이增加됨 脫藥後 體重을 다라보시요
七、몸의 健康은 家運의衰退를回復하고 ○○의 和康은 不和한家庭을和睦케함 몸의健康 精神의健康 ○○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 和睦케하며 衰退하여가는 家勢나 一하
八、百補丸은 完全圓滿한補藥이됨 補藥中에는 或一部臟器만補하는藥도 許多하야 或人効 或人無効하지만은百補丸은 人體百部를全部理想的으로 補身하는藥만 二十餘種珍貴한 原料가配合하야잇는 神人道師 葛玄眞人의 救世的秘方藥입니다
九、胃氣가大增進하야 ○○의回數가 不可避之勢로增加됨
十、血色이 조와지며 얼굴에주름살이 펴지며젊어지며 玉骨仙風이됩니다
十一、힘이생김니다 神經衰弱가될것은 멀니멀니갑니다
十二、사람이 차차하고 점지안어 집니다
十三、長久連服하면久淋도消滿됨 ○○後疲勞不覺은 참신기 기묘可能其効
十四、淋疾根治後는回陽키爲하야 必히 百補丸을服用하여야합니다
●百補丸은 絕對的 一時的 効果를내는劑이 아니요道師神人葛玄眞人의長久効力나는秘方劑입니다 葛玄眞人은 漢學者들은 다잘아시는道師입니다
代金特價一劑拾圓·重用二十圓

藥先送服後代金支拂
神人道師 葛玄眞人의 秘方藥
補腎·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一平生兼病健康長壽劑
百補丸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效의最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補藥인故로藥先送하고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잇습니다
그런즉이藥의效力이얼마나 確實한지는諸氏도 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 補藥 百補丸을 服用하시와 更少年이되시요
代金後拂規定及趣旨
百補丸의 大特効를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 만흔試服後代金을 잘支拂하여주실人士는 官吏인지 私民인지 商工人인지 紳士인지 無産者인지農民인지 富者인지 알지못하겟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던지 다 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도업는形便인故로 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鮮面長 全朝鮮官 公立學校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面町總代 全朝鮮百石以上秋收하는 地主에게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氏에게는 未安하고未安하오나 普通注文으로 하여주시기를伏望하옵나이다 萬一이라도 試服後代金은 支拂할것이오 藥이不合意하면 返送할것이고 普通注文도 代金은 先金又는引換代金으로 藥을受取하엿으나 萬一이라도 或藥이貴意에不合하면返送하시고全額返金請求를하시겨規定이되여잇사오니 先金이나代金引換이나服藥家의利害得失은꼭갓습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먼저 後拂注文이라쓰고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시요 送費七十錢郵票同送합니다 送費七十錢은 先金을受하오니 郵票나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官名에官吏면 官名을肩書하여주시고 富者면 地主라고 肩書하여주시고 百石以上秋收하는地主면 地稅證明書를 注文書에는必히捺印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 先金 十圓을보내주시던지 藥書로 百補丸特製一劑代金 引換付送하오하시오
普通注文人께特典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 本社負擔하고 또本社 苦心發見한專賣權手續中인 藥始皇이愛用한 觀官에 秘中秘로 秘藏되여 秘方藥超特 藥一回用小一箱式을 無料로添呈합니다 三劑以上 共同注文 百補丸一劑無料添付 (期限當分間)

藥效가 廣告와 다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百補丸은平和堂外에絕對無하오니 僞造品에注意하시요▲
信用販賣高 朝鮮第一
京城堅志町(五·七) (前中央日報社跡)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京城五番·電光六三二番

中央基督青火曜講壇

시내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 농촌부에서는 화요강단회는 오월오일밤 시부터 아래의 연제와 연사로 열리게되엇다

演士 [illegible]氏
演題 現代文化와[illegible]

主婦夜學開設에 百餘名이 殺到

工場의職工들도熱心히勤工

梨泰院朝陽學院盛況

【京南】 한가정의 주부가 되여 아츰부터 저녁까지 부억지다가 리로 해를보내는 조선의 며누리들이 밤장 붓드마며매서 읽드라도 글을배워야살겟다라는 "술로간"을들고 부내 리태원정(梨泰院町) 조양학원(朝陽學院)에는 벌서 두어달전부터 동리부인들이 야학부(夜學部)를 설치해달라고 간청함으로 학원당국자들은 여러가지로 고려해나려오다가 이월서부터 동 야학부를설치하엿든바 개학하는 첫날부터글에 주린"한주먹"두"든 입학생은 일백사십여명의 다수에달하야 밤늦도록 글읽는소리는 명랑한"조선의며누리 부억전주곡"을노래하는듯이 열심으로 배우고잇다 그런데 또한편으로는 햇빛조차못보는 커컴한공장속에서"마치"소리를들이든 문맹직공들이 몰여드러 열심으로 배우고잇서 신록이 방동해지는 이동리에는 주야 글읽는소리로 더한층명랑해가고잇다한다

夜市商人團의賞品 孤兒院에寄附

本社에物品을全部寄託

일작녁 본사를 차저와서 경성 상일장춘단공원(奬忠壇公園)에서 거행된 제십회전경성 상공연합대운동회에는 종로야시(鍾路夜市) 상인들도 처음함께 참가하야 줄거운하루를 보내엿는데이에참가하야 상을바든 그들은그상품을 한고아(孤兒)들을 위하야 이상품을 노나주시기를 바란다고하면서 상품을기탁하엿슴으로 본사에서는 그뜻대로 그방면에긔증하기로 하엿다 (사진은 긔부자들)
▲寄贈者氏名=白南米 洪淳寶 金永鎭 金裕完 任道淳 高永麟

全市民이動員햇든 壯快한兩運動會

一、二等의 빗나는 入賞者들

전경성의 상공업자들의 심신을 위안하자는 의미로 매년열리는 경성상공협회주최(京城商工協會主催)의 제십회전경성상공연합대운동회와 남대문시장상인련합회주최(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主催)의 제삼회상인련합대운동회는 각각 장충단공원과 동대문밧 식은운동장에서 모다 인산인해의 대성황리에 열리엇든바 경기당일의본보 석간마감이후의 두곳대회의 전적을 기록하면 다음과갓다

【京城商工運動會】

【自轉車競走】▲一隊 1林元峯(日出精米) 2崔東元(光云)
【女子二百米】▲一隊 1李榮淑(天一) 2金慶熙(同上)
【釣魚競走】▲一隊 1金永鎭(鍾路夜市) 2金錫濟(金塔理髮科)▲二隊 1白南米(鍾路夜市) 2李仁洙(同上)▲三隊 1韓相德(玉川屋洗布所) 2朴暢和(平和堂)▲四隊 1吳杭模(大昌洋靴店) 2許千吉(鍾路夜市)▲五隊 1朴京河(大昌洋靴店) 2姜顯珉(光云)
【自轉車競走十週】▲一隊 1崔甲成(兄弟) 2張順福(高麗美術浩花)▲三隊 1柳錫順(高麗美術浩花) 2趙蓉勳(韓敬善洋靴)▲二隊 1尹淳翼(鍾路夜市) 2鄭榮燮(日出精米)
【變裝競走】▲一隊 1沈範應(韓敬善) 2趙連浩(文化)▲二隊 1沈相鎭(三星堂額緣) 2金泰吉(敦昌)▲三隊 1金永植(文化) 2宋錫慶(大昌)▲四隊 1姜顯珉(光云) 2崔興德(韓敬善)
【自轉車競走六週】▲二隊 1金仁得(大昌) 2李相元(朝陽社)▲四隊 1趙昌漢(日出精米) 2金桂德(大昌)▲六隊 1池明吉(平和堂) 2陳順奉(梅原)▲八隊 1崔石池(天一) 2辛完植(三星堂額緣)
【提燈競走】▲二隊 1金孝根(三廣) 2宋錫영(大昌)▲四隊 1[illegible]
【二百米競走】▲二隊 1任道淳(鍾路夜市) 2金永鎭(同上)▲四隊 1鄭三雲(天一) 2鄭漢甲(兄弟)▲六隊 1南壽逸(鮮一商會) 2馬熙璟(大昌)▲八隊 1尹興福(大昌) 2金基永(鮮一商會)▲十隊 1朴熙元(韓敬善) 2車俊石(敦昌)
【女子珠算競走】▲一隊 1辛壽命(朴承稷) 2崔於眞(天一)
【自轉車競走三週】▲二隊 1金榮國(三星堂額緣) 2安點童(兄弟)▲六隊 1朴炳宣(平和堂) 2尹淳翼(鍾路夜市)▲七隊 1趙昌漢(日出精米) 2孔基俊(鍾路夜市)▲十隊 1李漢貴(鮮一商會) 2李永稙(敦昌)
▲三隊 1金東赫(大昌) 2鄭三雲(天一)▲四隊 1趙興哲(天一) 2金龍培(光云) 3陳順昌(敦昌) 朴東鎭(大昌) 2金興萬(大興)

京城商工運動寄贈

興信組運送部二十圓 金榮培二十圓 日本水產株式會社京城出張所十圓 友田運送店十圓 太西組十圓 大東商事株式會社五圓 李順東五圓 京城荷主組三圓 李康善三圓 柳炳奎二圓 興信商會二圓 金鴻基二圓 合計金九十七圓也 累計金一千八百九十二圓五十錢也

【入百米競走】▲一隊 1趙今成(大昌洋靴) 2金允模(天一)▲三隊 1安成福(兄弟) 2林炳奭(天一)▲五隊 1李石根(鍾路夜市) 2申仁範(大昌洋靴)
【女子徒步競走】▲一隊 1李順男(天一) 2崔玉順(敦昌)▲二隊 1崔俊男(天一) 2李順伊(同上)
【障碍物競走】▲一隊 1吳洪實(平和堂) 2趙丙玉(敦昌)▲二隊 1金泰吉(敦昌) 2金元植▲三隊 1朴光哲(三星堂額緣) 2申昌均(和信)▲四隊 1南東洙(鮮一商會) 2李石榮(韓敬善)▲五隊 1方錫範(大昌洋靴) 2朴仲燮(天一)
【計算競走】▲一隊 1金龍煥(朴承稷) 2金興國(大興)▲二隊 1[illegible]
【女子徒步競走】▲一隊 1片貞學 2金眞淑(天一)
【自轉車競走十週】▲二隊 1金俊元(兄弟) 2朴[illegible](天一)▲四隊 1[illegible] 2[illegible]▲六隊 1吳[illegible](日出精米) 2金[illegible](大昌)
▲一隊 1李容鎬(和信)▲二隊 1朴熙元 2金弘範(同上)▲三隊 1[illegible]▲四隊 1任道淳(鍾路夜市) 2郭相哲 1尹洪基(大昌)
【女子計算競走】▲一隊 1金立粉 2辛壽命(朴承稷)
【障碍物競走】▲四隊 1李仁洙(鍾路夜市) 2金昌烈(韓敬善)
【스푼競走】▲一隊 1宋秉勛(和信) 2金永燦(和信)
【珠算競走】▲一隊 1車星勳(大興)▲二隊 1李[illegible] 2金興萬(大興)▲三隊 1徐內燮(天一) 2金永燦(和信) 2尹甲植(和信)
【八百米競走】▲二隊 1金昌根(韓敬善) 2朴昌植(大昌)▲四隊 1金圭範(大昌) 2朴熙元(韓敬善)
【女子包箱競走】▲一隊 1崔石粉(天一) 2辛壽命(朴承稷)
【運命競走】▲一隊 1金龍奭(韓敬善)▲二隊 1張聖煥(韓靑) 2金昌烈(韓敬善)▲三隊 1崔光鉉(天一)

南大門商人會側

【提燈競走順序】▲二組一、徐仲與(金正善)二、劉洪童(金千龍)▲三組一、文得吉(金千龍)二、金鍾振(朴慶淳)▲四組一、辛圭賓(辛鶴成)二、[illegible]▲五組一、金[illegible]元鎭二、劉永頁(京城製菓)▲六組一、金球煥(辛鶴成)二、金明洙(韓永洙)▲七組一、崔泰榮(吳潤學)二、朱炳文(安慶春)▲八組一、金點頁(同信)二、金昌玉(韓永洙)
【珠算競走】▲一組一、徐敬善(朴權眞)二、李瀾楨(正信)▲二組一、洪鍾奎(吳潤學)二、金相德(林聖初)▲三組一、[illegible](韓永洙)
【障碍競走】▲一組一、朴榮昌(朴慶淳)二、洪性天(金千龍)▲二組一、崔毅正(天日)二、李福童(梁文煥)▲三組一、朴容煥(朴泳德)二、李永頁(同和)▲四組一、洪三石(金元甲)二、辛圭範(辛鶴成)▲五組一、崔壽用(崔日成)二、李龍伊(崔君)
【千五百米競選競走】▲一組一、尹一成(金麗宗)二、張元興(李昌錫)▲二組一、方[illegible]
【一等賞品競走】▲二組一、崔日成二、徐[illegible]
【千米自轉車競走】▲二組一、崔萬玉(萬成)二、[illegible]二、尹[illegible](辛鶴成)
九(崔日成)▲二組一、鄭洋洙(天日)▲三組一、朴[illegible](林聖初)二、崔[illegible]▲四組一、[illegible]吉(大昌)
正善)二、朴[illegible]來(朴慶淳)▲三組一、中泰元(富興精米)二、崔光童(崔日成)
▲×四組一、申炳俊(朴慶淳)二、鄭點時(有光)▲×五組一、洪三石(金元甲)二、文鐘永(梁文煥)▲六組一、金[illegible]永(南米)二、李興出(和成)▲七組一、金好範(金千龍)二、[illegible]敬秀(金麗宗)
○【[illegible]競走】▲一組一、朴榮昌(朴慶淳)二、申完均▲二組一、[illegible]文(金潤濟)二、鄭[illegible](元鳳洙)
○【六百米競走】▲一組一、方壽奉(李昌錫)二、崔[illegible]同(梁文煥)▲二組一、金泰煥(李興元)二、[illegible]敏植(崔勉植)
○【買物競走】▲一組一、表相準(孫完榮)二、金[illegible]術(金正善)▲二組一、朴容煥(朴泳德)二、[illegible]泰(金奎熙)▲三組一、[illegible](韓好先)二、金敬昇(富興精米)▲四組一、鄭[illegible]根(金潤濟)二、林尙奎(李興奎)
○【障碍物競走】▲一組一、李南洙(金奎熙)二、崔[illegible]先▲二組一、金圭煥(孫完榮)▲三組一、[illegible]奎(韓好先)二、金在[illegible](朴斗煥)
【一人二脚競走】▲一組一、林蠶男(吳潤學)二、徐光烈(徐相旭)▲二組一、[illegible]漢(韓好先)
【障碍競走】▲一組一、白南[illegible](朴慶淳)二、崔光童(崔日成)▲二組一、金鎭永(南米)二、李千龍(元熙洙)▲三組一、[illegible]好範(金千龍)
【變裝競走】▲一組一、鄭五三二、張恒(正信)二、洪性天(金千龍)▲二組一、朴在釗(姜興奎)▲三組一、金明淳(金千龍)二、林泰鎭(同上)▲四組一、金點福二、尹周博(李德秀)
【抽籤競走】▲一組一、林蠶男(吳潤學)二、金榮泰(金泰)▲二組一、金富洙(韓寅煥)二、韓潤濟(金潤濟)▲三組一、金昌玉(韓永洙)二、朴壽命(金潤濟)

仁川靑年會理事會

會館建築等決議

【仁川】인천청년회에서는 지난 삼십일오후팔시부터 외리(外里) 무도관(武道館)에서 리사회(理事會)를개최하고 이천여원의비로회관건축을 결의하고 오는십오일부터 상당한기간을 인천청년회대 축하회를기회로 경인(京仁)궁술대회를 인천사정(射亭)에서 거행키로 결의하얏다한다

配達不能郵便物

昨年中에近五萬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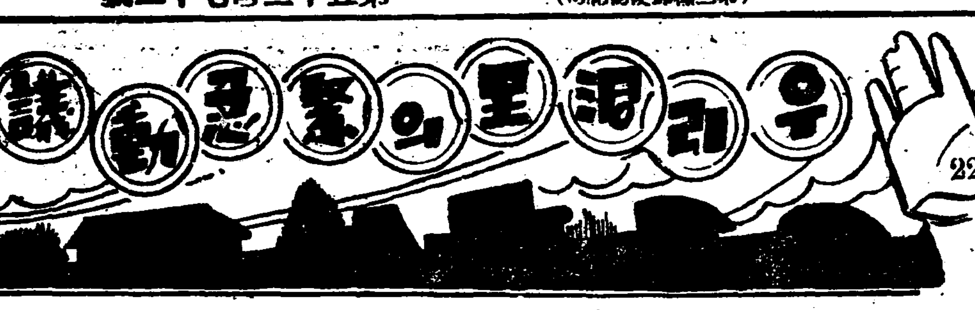
주소를 분명히 쓰지안코 또는 이사해간곳을 알수업서 우편물을 바둘사람에게 배달할수업시된 소위불능환부(不能還付)우편물의 취급수는 전조선을통하야 사만구천칠백칠십두벌에 달한다 그가운데서 통상의편물이 사만칠천팔백일곱벌, 소포(小包)가 [illegible] 탈출품(脫出品)이 삼백열세벌, 외국우편물이 오백사십일곱벌이다 이가운데서 체신분서에서 내용을조사한뒤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된 우편물이 일천구백사십세벌이다 이런사고를내게한 우편물은 발송인의 부주의로 생긴것이 대부분이엿다한다 우편배달인의 머리ㅅ살이 아프게하는 이사고를 방지하는데는 제각금 주소, 성명을 분명히써서발송하는것이 조켓다한다

仁川觀櫻騷動裏에 過失致死二件

交通事故와酒席의싸홈끄테

【仁川】인천시내본정(本町)사정목영정(永井)잡화점 동련례(董延禮)(三〇)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지나정(支那町)사십사번지 근방에서 통행중의김기연(金基淵)(三)과충돌하야 지난삼일오전십시에 맛참내사망하고말엇다 그러나 전기가해자는 일금팔십원을 전재하야 피해자측에 지불하얏슬뿐아니라 자신이 처벌을바라는기특한청년이엿다고한다

▲송림리(松林里)백삼십번지권치명(權致明)(三七)은 한집에잇는 리정태(李正泰)(三一)이와 외리(外里)(채미전거리)에서 가리술을먹다가 사소한언쟁끄테 리씨의 음낭을찬것이 발단되야 맛참내 남이일오후팔시에 사망하고 말엇는바 인천서에서 해부한결과 외인편제륵골이 부러저맛참내 가해자는 과실치사죄로 인치되엿다한다



暗渠는나좃하고 護岸浚渫만이라도

清溪川下流의東部住民苦痛

偏側電軌를中央으로

舊京城第十一篇

우리는 이제부터 소위"동부"라는 일홈아래 이때까지 포함되여온 종로사정목 례지정 종로오정목(鍾路五丁目) 종로륙정목(鍾路六丁目) 충신정(忠信町) 창신정(昌信町) 숭인정(崇仁町)의일홈 한구역으로하고 효제정(孝悌町) 련지정(蓮池町) 련건정(蓮建町) 동숭정(東崇町) 명륜정(明倫町)一、二、三、四丁目) 혜화정(惠化町) 원남정(苑南町) 인의정(仁義町)의 열한동리를 한구역으로 편의상 구획을 짜놋코 이동리주민들사이에 오랜세월두고 차이고싸인 그실업는솔직한 불평불만을 「긴급동의」로 듣기로하자

×

첫재로 우리들에게 공통되는 불평과불만은 소위"동부"라는이름아래 이때까지 우리들이 적잔흔 천대를바더온점이다. 이것은절대로 추상적언론이 아니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첫재로거리의모든 시설을조금이라도 주의깁게 살펴본다면 이사실은제일잘알것이다 매십변전 옛날부터 소위서울시민층에든다는 우리들이 살고잇는동리골이 이때서야 다른사람입에서 어찌큰소리를 할수잇스랴! 첫재로종로사정목 례지정 오정목 륙정목주민에게 공통된 불평과 요구는 저청계천(淸溪川)문제이따 복악산(北岳山)에서 떠려지는 한줄기 내가되여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흘너 서울시내를 남북량쪽으로 갈너놋코 중랑천(中浪川)에 합류되여 한강으로 흘너드러가는 이청계천이야말로 참으로 경성 시민에게는 영경(英京)「론돈」의「테ー므쓰」강(江)에 필적하는 귀중한선물이거늘 어찌하야 이개천이 이다지도 안주민의 말성거리가되며 의대상이 되여잇는가! 엇재서 부는 이개천의 호안공사(護岸工事)를 하루밧비 완전히하고 현대과학(現代科學)의 꼬치되여잇는「드레ー저ー」(浚渫船)를드려 길히팔줄을 모르는가? 그러타면 마시는오ー케ー일것을…… 이개천 상류에사는 사람들은 개천에서 냄새가나너니 여름이되면 파리가번식하너니 전염병균의 번식장이되너니하고 야단법석을하는데 이러한 떠려운것이 다아래로 모이는 우리하류주민들의 고통이야 그얼마나하릿가? 참으로 우리들은 자깨나 이개천의 청소문제(淸掃問題)가 사활문제라해도 조금도 과장이아니오 과언이 아닐것이다 더욱 오륙년전까지는 각금가다 생각이나면 한번식 개천바닥을 치든 경성부가 요새몃해동안은 이것조차하지안흐니 대체엇지된세음이지요 응급수당으로 하로밧비 인부를드려쳐내도록하여주시요 그리고영구책으로는 아무리하여도 앗가말슴한바와갓치 호안공사와 준설공사가 무엇보담도 필요할것입니다

다음에는 창신(昌信)、숭인(崇仁)두동리에 특수한것이나마 대단중대한"긴급동의"가잇슴니다 여러분은 기다란동면(冬眠)에서깨면 따뜻한봄거리를 따라동대문밖으로 잘나오시지요 이때에마침 바람이불어 편이나 끈난닐것이외다 바람만불면 우리창신,숭인방면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코를 뜰수업습니다 이러한 불편불평은 아마도 직접당하여 보신이가 아니면 잘리헤하기가 어려울것이외다 남만주봉천(奉天)이란곳이 봄바람이세기와 몬지만키로 유명한데라지마는 우리창신 숭인양정 몬지도 아마여기에 지라면섭섭할거요 홍진마장이 우리동리의 전용형용사란말도잇나요 동대문에서 신설정(新設町)까지 일천륙백메ー타ー남게 되지안는데 이동안을 포장할돈이 업스리만치 경성부살림이 궁색하게되엿나요? 우리들위하는니보다 당신네명예를 위해서도 좀생각내는 게엇데요. 또그리고 매양말슴되리는것이지만 전차길도 시내다른데는 거이다ー 길가운데로되여잇는데 우리안전차길만이 편측을고지(固持)할 필요가 무언가요, 원시적 전차선로의 표본으로 지정하신다면 우리주민은 그야말로 큰일편이외다, 창신정에는 또하나 큰문제 위험이잇스니 귀찬으시드라도 하나들어주시요, 창신보통학교압헤 공용수도전(共用水道栓)과 소화전(消火栓)이 하나도업스니 만일불이나면 엇지할세음이요, 그뿐아니라 홍수통(紅㶊水)에서 청량리로가는 가로 나오는 하수도(下水道)를창신정 오백오십번지압에서 벼룩뚜러진 엉터리를 맛스니 물을어데로 흘너가란말요 리처서 길을넘거나 그렇지안으면 뒤로역수(逆水)가되여침수가옥이 생길것만아니라 로록 변통하시는게엇데요(계속)

(사진은 발전하는동대문밧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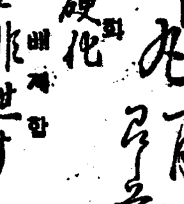
처자와 국가를 위하야
妻子のため國のため
악독을 제거하라
惡毒を去れ
중종용 독소환
重症用 毒掃丸 一月分
매독제증 동맥경화 혈압증진을 배제함
梅毒諸症 動脈硬化
한달먹음
血壓亢進を排泄す
제일유명약점에잇습니다
名高き藥店にあります
二円 三円 五円 十円 廿円

無心히마시는술로더알른 淋疾……ネオヂリン(네오지린)으로……곳치라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玉屋時計師養成所生徒募集
新義州梅枝町入 (規則書進呈)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朝鮮唯一 認可電醫



成善
創立三週年特典生募集
▼物理醫療士責任教授
最新物療全科教授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令되다하나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本院卒業生은醫師同樣에依하야有하고皆成功함
希望者에게는學則、內容書送呈、業者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二四四番地
▲近來本院의模倣講習院或은類似院等이잇스니特히注意하시라

榮養力强大!

이야말로葡萄가잣고잇는天然의滋精!果實의精!을가장豊富하게保有하고잇습니다!마음대로든든케되시려면은날마다반드시服飮하시라힘차고도즐거운榮養酒입니다成分은精力補給料로써最優秀의榮養素「葡萄果糖」及血液骨骸을위하여는不可缺의無機鹽類等이含有!

醫界의諸權威五十醫學博士로부터推奬狀을밧은優良葡萄酒 그甘味는무엇보다成分中의葡萄糖과果糖의甘味 故로그優秀性은他의蔗糖에依하야加味된粗製葡萄酒에比較할수업는快品!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도와인

京阪神遊園地寶塚

그規模雄大·設備完備에一驚

大阪에서 著者 咸尙勳

局長足下 十九日 午前에 日程을 고처 六合山、京阪遊園地를 찾지 않고 大阪主催의 博覽會와 寶塚을 구경하기로 하얏습니다。 大阪主催 博覽會는 第一會場이 甲子園、第二會場이 六合山으로 나뉘어 잇는데 第一會場은 一般的 展覽物을、第二會場은 甲子園遊園地、第三會場은 高山植物을 보도록 되어잇습니다。 第一會場은 博多에서 본것과 거이 大同小異하야 別로 興味를 끄는것은 업고 第二會場은 從來의 甲子園을 뵈우는만콤 大部分이 初行인 우리 一行에게는 만흔 愉快를 주엇습니다。 朝鮮서 某實業家가 이것을 보고 京城近郊에 이런 設備를 하겟다는 企劃이 잇다한은 決코 無意味한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 잇습니다。

◇

그러나 局長足下 우리가 愉快한 느낌과 感慨의 마음을 가지게된것은 甲子園을 볼때의 가 아니오 寶塚을 볼 때의 다。 寶塚은 神戶、大阪、京都의 略 中央에 잇는 곳에다 數百萬坪의 土地를 利用하야 劇場、溫泉、食堂、公會堂、動物園、植物園、遊園地等 온갖 設備를 하야노코 京阪神의 사람들로하야금 一大歡樂場으로 삼게한것이외다。 우리는 먼저 大劇場에 들어가 劇場의 크고 아름다운것과 少女歌劇團의 神妙한 歌劇에 感激하얏습니다。 그리고 [illegible] 京阪神의 [illegible] 이러한 歡樂場을 가까이 두고 [illegible]

◇

本來 이 寶塚을 設立한 이는 大阪의 小林一三氏가 大膽히 이 寶塚을 當時 坪五十錢內外의 땅을 數百萬坪 買收하야 今日에 이르른것이 [illegible] 交通을 便利케 하야 그地方 地價를 올리게 하고、劇場等遊園地를 施設하야 京阪神 七百萬人口를 끌어 鐵道收入과 寶塚收入을 [illegible] 二十年內外에 [illegible] 우리 [illegible]

이 事業은 成功하얏다 합니다。 [illegible] 當時 寶塚 [illegible] 이 이어지만은 [illegible] 에 가깝다고 親友의 反對를 물리치고 斷行한 小林氏의 先見의 明이 잇섯다 하겟습니다。

◇

[illegible] 事業이 一般 [illegible] 아니오、아모리 [illegible] 그 [illegible] 生活의 [illegible] 사람이 [illegible] 人生의 追求하는 [illegible] 저녁때 寶塚을 떠나 大阪에 와서 [illegible] 의 往來를 봅니다。

(四月二十九日夜)

產業

家畜市場經營 農會에移讓乎

家畜市場令을制定

朝鮮內의 家畜取引은 市場數九百卅餘 其取引額年間五千萬圓을 超過하는데 그市場取引經營 並 取引價格은 在來의 慣習이 半固한 勢力을 占하야 取引의 公正을 缺하는일이잇다하야 農林局에서는 이 統制、公正化의 見地에서 家畜市場令의 制定調査를 進行하고잇다 現在 家畜市場은 市場規則에依하야 經營主體는 府邑面等이오 施設、中介는 農會가 行하고잇는데 이取引은 例의 「慣取引」으로 價格의 公正을 缺하고 仲介業이 介在하야 不當한 仲介를 하는者가 不少하야 畜産獎勵로볼지라도 不美한 實情에잇다는것이다 이리하야 農林局에서는 家畜市場令을 公布하야 單獨法規로 取締를 行하려고 일즉부터 各道에 照會하야 道別事情을 調査中이든바 府邑面에 對하야서는 有力한 財源인點에서 一部에反對가잇스나 原則으로 賛意를表하고잇다 이에 鑑하야 農林局에서는 市場令의 制定等具體的 工作을 進行하고잇는데 大體經營主體를 農會로實現할意向이다

桑樹의寒害도 豫想보다輕微

平南의春蠶掃立增加

【平壤】平安南道內의 春蠶掃立은 昨年보다 八千餘枚가 增加한 六萬枚로 豫想되엇스며 今年은 氣候關係로 若干 遲延되여 掃立開始는 五月十七、八日頃부터 이라고본다 또又桑樹의 寒害도 極히 憂慮되엿섯스나 그러케 甚한程度는 안이어서 順調로 進行될것으로 보인다

漁獲約五千圓

四月中南海灣 豐漁의前兆乎

【海南】南海灣海岸에서 四月한달동안에 約五千圓價額의 漁獲高를내엿다는데 種別로보면 鮍子鰮千袋 價額千餘圓 平長蛸價額三千餘圓 其他雜魚 價額五百餘圓이라는데 昨年度의 空前의 凶漁로 울고잇든 漁民들은 今年度漁業初頭에 이러함은 豐漁의前兆라하야 一般은깃버한다

梁山郡農事品評會

【梁山】梁山郡農會主催의 昭和十年度 更生部落競進會와 農事品評會入賞者에對한 授賞式을 지난四月二十九日 正午부터 郡廳內에서 擧行하엿다

春蠶掃立豫想 近六十八萬枚

比前年七分의增加

農林局調査=今年春蠶의 各道掃立豫想은 合計六十七萬九千八百枚로 前年五枚(七分)의 增加인데 掃立時期는 五日乃至十日가량 遲延될豫想이다 各道別掃立豫想은 如左하다(以下單位枚)

京畿	四五、〇〇〇
忠北	四四、三〇〇
忠南	四二、〇〇〇
全北	三八、〇〇〇
全南	五二、〇〇〇
慶北	一二九、〇〇〇
慶南	三八、〇〇〇
黃海	五〇、〇〇〇
平南	五八、〇〇〇
平北	四五、〇〇〇
江原	八七、〇〇〇
咸南	四八、〇〇〇
咸北	三、五〇〇
合計	六七九、八〇〇

利川郡內酒釀造高

【利川】昭和十年度中 利川郡內 各酒造場에서 酒造된 石數는 濁酒一三、六六〇石과 藥酒九〇石으로서 그販賣市場은 主로本郡內이며 其他隣接郡인 陰城、安城、龍仁、驪州、廣州等地에販賣되고 其中 東一釀造場 月光藥酒는 全朝鮮酒類品評會와 京畿道酒類品評會에 數次入賞되엇든것으로 天安、京城方面에 盛히 賣行되며 販路도 漸次開拓되고 잇슴으로 그前途는 매우 有望視되며 昨年度中 利川郡內 酒類總産額은 三五四、五二〇圓으로 昭和四年度二二四、三三三圓이다

對滿輸出減退 市場再檢討必要

市場狀勢調査不充分

朝鮮의 對滿輸出은 事變以來 急膨脹하야 朝鮮産品進出은 建設景氣로 各品모다 一齊히 膨脹을 示하고잇든바 그後建設一段落으로 全般的沈衰를 招致하야 今年度의 輸出不振과 如함은그 表現인데 이에 關聯하야 對滿市場의 再檢討 並再認識을 行할것이라는 輿論이 有力하다 現在 朝鮮産品輸出中에는 需要를 豫想하고 輸出을 行하면서도 奉天、新京等의 各集散地의 수록으로 되여잇는것이 少하다 就中 鹽干魚와 如한것이 一例로 되여잇다 이는 市場狀況、消費 그他의 調査가 不充分한 點이 不少하야 廉價라도 팔리지안코 빗싸도 팔리지 안는 멜리케잇든한 關係를 生하고 잇다 이러한 現實에 鑑하야 對滿貿易에도 層一層 愼重히 市場狀勢를 調査討究할 必要가잇다 한다

實驗的領域脫出 田輪作을一大改新

忠南道에서實施計畫

合理的田耕作이 最近 朝鮮內農業의 新計畫으로되어 二毛作、二年三作、麥類關係等이 各히 硏究對照로 列擧되어잇는데 忠淸南道에서는 率先하야 從前의 實驗的範內를 脫하야 計劃的으로 輪作의 擴充에 進出하기로 되엇다 이는 從前忠南의 田輪作은 所謂二毛作으로 大豆、大麥에 限하야 地力維持、豐凶의 經濟打開를 並 收穫上 不美함으로 이를 改革하야

一、田의生産力을 維持하고
一、作物種類를 增加하야 安全을 增大케할
一、勞力의 合理的 配備를圖할

의 三點을 目標로 十一年度부터 道內農事改良組合을 中心으로 輪作의 一大改新에 進出하기로 되엇다 具體的方法에對하야는 近近 道技術員會議를開催하고 協議할 豫定이다

尙州稚木植付 一百七十六萬餘株

【尙州】慶北尙州郡下에서는 [illegible] 十八町에 今年四月에 植付한 苗木數는 一百七十六萬一千二百八[illegible] 比하야 一三〇、一九七[illegible] 好成績을 示하고잇다 [illegible] 十三本에 [illegible] 本數는 다음과 갓다고한다 구기다松二三六、〇〇〇 赤松二三、五〇〇 黑松八一、七〇〇 栗木一八二、七〇〇 [illegible] 九六三、三〇〇 櫟木 一〇九、九五〇 아마한 二九六、〇〇〇 아시아 [illegible] 一一、一〇〇 [illegible] 二〇〇、〇三三

鑛山金融機關 速히出現될形勢

鑛業者의要望熾烈

朝鮮의 [illegible] 鑛業은 [illegible] 以來 [illegible] 今年은 六十萬圓 [illegible] 今後 日本內地의 [illegible] 一二年의間에는 [illegible] 이는바 此等增産에는 相當한 鑛業資金을 要하나 現在 朝鮮의 鑛山金融機關은 文字대로 不完備 [illegible] 總督府에 [illegible] 鑛山金融의 確立 [illegible] 實現을 要望하얏든데 總督府에서도 朝鮮內鑛山業의 發達에 備하야 鑛山金融機關의 確立計畫을 樹立코 잇는데이만큼 意外로 速히 實現할것으로 觀된다

金坪金山總會

[illegible] 山의 第四期決算總會는 月末開催 豫定인데 株主配當은 前期同樣 無配當으로하고 利益金은 全部償却과 社內保留에 充當하기로되엇다

電球輸出組合新役員

朝鮮電球輸出組合에서는 過般의 總會에서 役員改選을 行하얏는데 新役員은 다음과갓다

組合長 原成男 副組合長 [illegible] 評議員 [illegible] 同 飯田幸藏 同 金幸雨

開城三月中貿易 百九萬四千餘圓

【開城】開城商工會議所調査에依한 開城 三月中 貿易狀況을 보면 貿易總額이 百九萬四千五百八十三圓으로 前月의 百二十四萬一千百七十六圓에 比하야 十四萬六千五百九十三圓의 減少를 示한바 그內容은 如左하다(單位圓)

▲移入總額

穀物	六五二、八六六
植物	[illegible]
穀類	二、三六八
[illegible]	五八、三三六

▲移出總額 三十七、〇八〇

[illegible]	五七五一
[illegible]	五四、七五九
[illegible]	四四八
[illegible]	一五三、五九六
[illegible]	一、八八四
[illegible]	九、八九四
[illegible]	五〇九六
[illegible]	一六、一四七
[illegible]	二四、七九七
衣類及[illegible]	二七、三六六
紙類	八、〇二五
油類	七、三四四
[illegible]	六四、五四五
木材及[illegible]	一四、六九九
毛皮[illegible]	二三、五六五
고무及고무製品	一、六〇九

▲輸入總額

[illegible]	一三、二二五
[illegible]	九三四
[illegible]	四、五八六
其他[illegible]	三五、〇二三
粟	七六、五一三
石炭	六四、七二〇
大豆粕	三、七八〇
松木[illegible]	六、六〇〇

▲輸出總額

紅蔘	一、一四一三
白蔘	四八、一二四
엑기스	四一、四四八
綿布	一、〇五四
[illegible]	三一〇
木[illegible]	五四八
[illegible]	三二〇
[illegible]	一五二五五
[illegible]	一、四七九

開豐郡의畜産 躍進的으로發展

昨年末現在調査內容

【開城】開豊郡農會畜産係에서는 十五面全郡을 合하야 畜牛 養豚 養鷄等의 統計를 昨年末現在로 調査해보앗는데 總數 六萬二千三百六十五頭란 놀라운 數字를보엿는데 그중 畜牛數로말하면 農家百戶比例로 五十六頭 養豚은 七十三頭 養鷄는 一戶에 三羽以上을 갓고잇는 比率로서 牧畜의 躍進的 發展相을 如實히 말하고잇다

▲畜産別數字

畜牛總數	七、三八九頭
牝	三、二八五頭
牡	四、一〇四頭
昨年度生産數	一、〇八七頭
昨年度斃死數	一三〇頭
養豚總數	一〇、一二五頭
改良種	八〇九頭
改良比例	八割八分
養鷄羽數	四四、八五一羽

尙州春蠶掃立枚數

【尙州】慶北尙州郡下의 今年度春蠶掃立狀況을보면 一萬七千枚를豫想하는바 昨年에比하면 二千枚의增加로 近年生絲景氣에刺戟을바더 農家의 養蠶熱이 相當히 高하진만큼 今後도 더욱增加를 보리라고한다

東滿人絹工場은 開山屯으로完定

【會寧】東滿人絹工場位置는 昨年부터 會寧地帶가 最適當하다 [illegible] 一般이 떠들석하든것이 요사이에 卒然 上三峰對岸開山屯으로 決定되고 敷地는 四十萬坪賣買가 完了되여 入札은 東京에서 할豫定이고 工事는 今夏나或은 今秋에 着工하게되며 職工은 約三千名을 使用할 計畫이라하야 只今부터 上三峰開山屯地帶에는 大活氣를 띄우고잇다고한다

特別議會提出될 經濟關係法案

═【七】═

製鐵業獎勵法 改正案

製鐵業獎勵法改正案은 端的으로말하면 財界關係法案이다 그리고 內容的으로말하면 相當히 重大한 經濟法令이나 이改正案에는 政府의 政策的意圖는 何等 나타난것이업다 그러면 이法案은 政府가 意圖하는바와가티 單只 財界關係의 法律案으로 되어잇는가하면 法案그自體가 內容的으로 重大한 經濟法令이니만치 政府로도 政策的意圖에 反하야 相當한 經濟的意義를 갓게될것이다

×

日本資本主義가 아직 搖籃期에잇슬때에는 이를 育成하기爲하야 만흔 産業保護助成案이 創設되엇는바 이 製鐵業獎勵法도 그結果와如히 此等法案의 一이다 要컨대 初期의 製鐵法은 鐵鋼業을 育成하기爲하야 一般으로 重要의 特典을 認定한것이 가기에 何等 經濟의 特殊事情에基한 技術的 或은 經濟的事情의 確立이 잇는것은아니다 그러나 歐洲大戰의 經驗은 日本製鐵業에對하야 經濟的特殊事情에 基하야서의 技術的經濟的國策을 樹立하게하얏다 이目的으로서 大正十五年三月製鐵業獎勵法은 改正되엇다 이것이 現行法이다

現行法의 內容을 要約하면 그核心은 同法第一條、第二條、第三條 即 一場所에서 一年三萬五千噸以上의 製鋼能力 及 一年二萬五千噸以上의 製鐵能力을 가진 設備로써 經營하는 製鐵事業에對하야서는 土地收用法의 第二條를 適用하고 또 그業者에對하야서는 新設 並 增設에 對하야 設備完成의年 及 그翌年부터 十五年間 그設備로 營하는 製鐵事業에對한 營業稅 所得稅를 免除함이라고되어잇다 大正十五年에 改正된 現行法에依하야 鐵石을 原料로하는 所謂 銑鋼一貫作業이 日本鐵鋼業確立을爲한 方策으로 採用되엇으로 이에對한 政府의 助長政策으로 免稅의 特典이 賦與되엇다 鐵鋼一貫作業助成이 大正十五年以來 一貫하야온 日本鐵鋼政策이엇는데 葬書는 一變하얏다 이는 金輸出再禁止時代의 出現으로 日本經濟界는 一般으로 重大한 變化를 바닷는바 製鐵業은 産業의 基本이오 또 軍需工業이니만치 資本主義經濟의 變化는 이에 集中的影響을 齎來할것으로 이情勢下에 새로 製鐵國策의 擔當者로 齋藤內閣時代 中島商相下에 日本製鐵會社가 생기고 이에 依하야 國策을 實現하며 鐵鋼業의 統制를 行하려 企圖하얏다 이에 鑑하면 製鐵國策도 確立된것이라 하얏다 그러나 自由主義經濟가운데에 나서 그와함께 자라난 町田商相은 九年十月 日鐵에對하여서는 아웃트사이더-인 日本鋼管에對하야 製鐵獎勵法에依하야 熔鑛爐建設을 認可하고 免稅의 特典을 아웃트사이더-에게도 與하얏다 當時 軍需인플레에依한 鐵鋼業의 收益率은 五割六割이라는 高率이엇슴으로 免稅의 特典은 벌서 必要가 업지만 特典에 어느程度의 制限을 加할必要가 잇지안는가하는 批判과 製鐵業의 現狀으로보아 同法을再批判하야 修正을加할것이라는 根本論도잇섯다 이根本論에서 出發하야 改正法律案이 成立될것이면 問題는 억 紛糾한 形態로 表現되엇슬는지도 모르나 前述한 經過에依하야서만 表面化하야 同法의 改正問題는 最後까지 根本問題와 遊離하야 處理되엇다。 이럿케 不透明한 情勢下에 六十七議會提出을 目的으로된 改正法律案은 同法의 適用을 밧고잇는 製鐵業의 收益率이 拂入資本金과 諸積金과의 總和의 年一割을 超過하는것에 對하야서는 그超過部分에對하야 普通의 稅率로서 課稅한다는 趣旨의것으로 三稅全免의 特典에 어느程度의 制限을 加한것이다 그리고 이改正法律案의 成立後에는 製鐵國策에對한 何等 根本的 再檢討를 加하지도 안코 또 財政稅制一般에對한 根本的批判에 關聯하야 된것도 아니다 그러나 民間側의 反對와 石渡前 主稅局長을 中心으로하는 大藏省事務當局의 反對가 잇섯스나 此改正法律案은 岡田內閣의 議會提出로 決定되엇다 그러나 議會에는 廣田內閣이 立案한 臨時利得稅法이라는 一部增稅案이 提出되엇고 改正法律案이 一種消極的增稅라고도 보이는 結果 鐵鋼業者에는 二重의 增稅 或은 負擔增加도 되어 元來高[illegible]

橫濱相으로서는 『經濟界 恢復의 芽를 摘取하지 말라』라는 心情이 잇서 改正法律案의 提出에는 反對하고잇섯슴으로 議會中間에 同改正案은 不提出로 決定하고 十年三月三日 이에 關한 聲明書를 發表하얏다 그러나 이改正案은 岡田內閣의 末期議會의 開會를 압두고 蘇生되엇다 即 高橋財政의 公債漸減方針과 實行하기爲하야 十一年度豫算編成에 當하야 國防關係의 豫算을 除하고는 各省모다 新規要求의 費用에對하야 各各自省으로부터 財源을 提出할것이라는 原則이 잇섯다 此原則에 基하야 商工省으로서는 商工中央金庫 其他의 新規要求에 對한 財源을 捻出하기爲하야 日本製鐵의 一分增配(政府에의 配當增加를 意味함) 石油關稅의 引上 製鐵獎勵法의 改正等의 財源關係의 法律案 乃至 實行案을 提出하고 或은 [illegible] 實行하기로되엇다 이目的을爲하야 製鐵獎勵法의 改正에依하야 約二百九十萬圓의 歲入增加를 엇는것으로 그以外 何等 改正의 理由는 업는것이다 따라 法案의 本來의 目的인 鐵鋼政策으로부터 遊離하야 改正案을 取扱한것이다 商工省의 新規要求에對한 財源이라하나 [illegible] 公債漸減方針과 豫算의 壓力이 改正을 不得已하게 된것이므로 改正案의 作成에 當하야서는 鐵鋼業의 現狀 或은 鐵鋼國策에서 再檢討한다는 本來의 意義를 [illegible] 되엇다 그結果 [illegible] 議會解散에 依하야 施行期가 늦어지는 [illegible] 約二百萬圓程度의 增稅에 잇서서는 約二百萬圓程度로 減少될려야다――가 果然 社會政策의 一部를 부칠만한 [illegible] 일가는 甚히 疑問이다 同法案이 一種의 增稅案으로서의 內容을 가진으로 前途에 增稅를 目的하는 稅制改革이라는 더욱 根本的意味를 가진 [illegible] 內閣에 잇서서는 同法案의 議會提出을 中止하고 右根本的 稅制에 準하야 同法案을 再檢討하얏스나 [illegible] 그結果 [illegible] 되엇스나 [illegible]

且國策的의것으로 扮飾하게될것이나 그러나 그도 同改正案의 特別議會提出의 意義나 目的은 變化된것이아니다 特別議會後 稅制改正에 關聯하야 根本的으로 再檢討될것이 規定은 [illegible] 實際問題로서 全般的 稅制改正에 [illegible] 現行法第二條例外規定의 [illegible] 日鐵、日本鋼管、淺野造船所의 三社에 [illegible] 本鋼管의 三百五十萬圓 [illegible] 可된 日鐵、日本鋼管、淺野造船所의 [illegible] 至 十五年으로써 期間이 滿了된다 [illegible] 되다 따라 製鐵國策이라는 見地로도 이에 對하야 根本的으로 再檢討를 加하지안흐면 안될 時期에 當하얏다

京城商店街

本町과鍾路槪況

昨年末現在、京城商議調査

商店街의地價、家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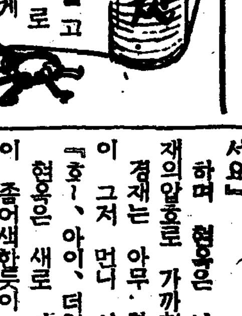
	最高地價	平均地價	平均家賃
本町一丁目	一〇〇〇	八〇〇	一五〇
同二丁目	八〇〇	六〇〇	一〇〇
同三丁目	五〇〇	四〇〇	七〇
同四丁目	三〇〇	二〇〇	五〇
同五丁目	二〇〇	一五〇	四〇
鍾路一丁目	八〇〇	五〇〇	一二〇
同二丁目	五〇〇	四〇〇	八〇
同三丁目	三〇〇	二五〇	五〇
同四丁目	二五〇	二〇〇	四〇
同五丁目	二〇〇	一五〇	三〇
同六丁目	一五〇	一〇〇	二〇

商店街更生振興策

本町=各町榮會마다 硏究會를 組織하고 調査硏究를 計畫中이다 鍾路=現在의商工協會는 希望者만의 加入에不過하야 事業遂行에 不便이 만흠으로 本通商店의 全部를 加入식히려고 計畫中이다

第一表 商店街小賣店分類表

類別	本町	鍾路
第一種 衣料品種		
第一類 織物、被服類		
1 吳服、太物、麻織物商	二七	二七
2 洋反物、羅紗商	—	二
3 洋服商	三三	三七
4 婦人兒孩服商	三	一
5 蒲團、夜具商	三	三
6 毛布類商	二	—
第二類 絲物類		
7 綿絲、毛絲、編絲、組物商	四	一
第三類 小間物、洋品類		
8 小間物、袋物商	八	一
9 帽子商	五	一三
10 洋品類商	二七	三四
第四類 履物、雨具		
11 靴及附屬品商	一一	四五
12 下駄、草履其他履物商	一八	—
13 雨傘、洋傘其他雨具商	—	—
第五類 毛皮、皮革製品類		
14 毛皮商	一	—
15 皮革製品商(靴鞄除外)	七	三
第二種 食料品種		
第六類 穀類、粉類		
16 白米商	三	三
17 雜穀、穀粉類(雜其他包含)	一	二
第七類 蔬菜、果物類		
18 蔬菜商	一	—
19 果物商	六	五
第八類 魚介藻類		
20 鮮魚介及冷凍魚介商	二	—
21 其他漁介一類	七	—
第九類 鳥獸肉類		
22 牛、豚、鳥肉商	六	四
第十類 油類、調味料、飲料		
23 和洋酒、酒、淸凉飲料商	二	一
24 砂糖商	一	—
25 味噌、醬油其他調味料商	一〇	—
第十一類 菓子、麵類		
26 和洋菓子商	三三	一七
27 麵商	四	五
第十二類 茶類		
28 茶商	八	—
第十三類 其他食料品類		
29 豆腐商	一	—
30 漬物商	一	—
31 其他飲食料商	一八	一三
第三種 住居品種		
第十四類 木材、竹材類		
32 木材商	—	二
33 竹材商	—	—
第十五類 石材、瓦、煉瓦、세멘트		
34 石材商	—	—
35 瓦、煉瓦、스레-트、타일	—	—
土管商	—	—
36 石灰、세멘트、아스팔트、土砂商	—	—
第十六類 建具、家具、指物商		
37 建具、表具商	七	二
38 家具、指物商	一七	一六
39 漆器商	—	—
第十七類 疊表、蓙、荒物類		
40 疊表、蓙類商	一	—
41 荒物商	三	六
第十八類 陶磁器、硝子品類		
42 陶磁器、土器商	七	一〇
43 板硝子、硝子器商	五	六
第十九類 金屬材料、金屬器具商		
44 金屬材料商	二	八
45 金屬器具商	一二	一二
第二十類 電氣機械器具類		
46 電氣機械器具商	三	八
第四種 燃料品類		
第二十一類 薪炭類		
47 薪炭商	三	五
第二十二類 石炭類		
48 石炭、코-크스、煉炭商	一	—



日用商品市況

漢藥 (京城四日現在)

	一等	二等
開城人蔘(一斤)		
一〇片	[illegible]	[illegible]
二〇片	[illegible]	[illegible]
三〇片	[illegible]	[illegible]
四〇片	[illegible]	[illegible]

	一等	二等
錦山人蔘(一斤)		
四〇片	三、〇〇	二、〇〇
五〇片	二、五〇	[illegible]

(以下單位斤)

桔梗 知母 天麻 白朮 狗脊 遠志 玄蔘 丹蔘 白芍 胡黃連 桑白皮 前胡 羌活 升麻 白鮮皮 貝母 細辛 白芷 良薑 砂仁 肉荳蔲 當歸 香附 澤瀉 荊芥 桑葉 茵蔯 黃芪 黃精 赤芍 山藥 大戟 巴戟 仙茅 地榆 草薢 黃連 黃芩 柴胡 防風 獨活 苦蔘 延胡 龍膽 川芎 白朮 白豆蔲 益智仁 破古紙 蒼朮 藿香 香薷 甘草 茯苓 金銀花 黃柏 杜冲 枳實 梔子 桂皮 厚朴 巴豆 牛膝 大黃 白附子 天花粉 天門冬 麥門冬 五味子 木通 紅花 菖蒲 牛蒡子 車前子 桂枝 烏藥 枸杞子 鹿茸 熊膽 竹瀝 麝香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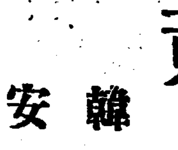
=大一藥房調査=

小生이 今年부터 養兎를 하고저하오나 副業經營으로 毛用種앙고라와 毛皮用렉기스 兩種中 어느것이 有利합니가 種兎販賣所를 下敎하시오 (平原一讀者)

答 採毛用앙고라나 採皮用렉기스 어느것이나 副業으로 有利합니다 그리고 種兎는 京城府蓬萊町 朝鮮副業協會에서 斡旋합니다

黃昏【77】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암 투(四)

『여게 오십……대에까지 갓섯서요』

하며 현옥은 보라는듯키 경재의압흐로 가까히 온다。

경재는 아무 할말이 업는듯이 그저 먼니 서잇다。

『호-、아이、더워』

현옥은 새로 마처 입은 양장이 좋어색한듯이 한걸음 더경재의 시선아래로 다아선다。

『참 오늘이 며칠이 드라?』

경재는 심상한 얼골로、려순이 압헤 달린 달력을 뒤적어 본다。

려순은 아모말 업시――그러나 오독하게 돌아안저서 첨필로 무엇을 끄적어리고 잇다。

이상한 공기가 려순이와 현옥의 사이를 빠르케 흐르는것갓고、남모르는 숨소리가 거칠게 맛부듸치는것가티 경재에게는 생각되엇다。

현옥이는 불현듯 자존심이 불숙 머리를 처들며 매무서운 눈쌀을 려순에게로 떨군다――

『저、안됏소만……밧그로 좀 나가주시우』

꺼리김 업는 우월감에 내려붓긴다。

그러나 려순은 동작으로나마도 대답하랴는 기색을 보이지 안코、마치 한손누구라이라도 드려만 보아라 하는드키、꽉 한모양으로 안저서 쓰든 글을 마저 꿋내고、눈도한번 깟닥어시 오출오출 밧그로 나가버린다。

순간、경재는 가슴에서 무엇이 볼큰 치솟는것을 깨달앗다。

현옥은 현옥이대루 또한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잇섯다。

아버지가 외이든 말이 생각낫다。

『경재란 사람、턱엇서』

아버지는 이러케 말하엿다。

『이 나뿔게 뭐냐、사내자식이주제에서 추근그리니까 그러지』

『젊은 놈들의 말이란 바람개비와 갓단말야』

이러케도 말하엿다。

『……모르는 소리 마랏。』 계집하고 경재를 밟통하라는 자기말에 버럭 화를 내엿도 잇다。

현옥은 이런생각을 하며 머리를 들엇다――

『경재씨!』

『……』

『경재씨……』

『웨 그리시우?』

『미안 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이애기 하시는데 방해를 해서 미안합니다』

현옥은 그의얼굴을 손으로써 씨서주고 싶은것을 가까스루참앗다。

『들어오래시우。그사람을……』

하는 경재의말은 그다지 날카롭지는 안호나 무게 잇는준절한 어조다。

『참말입니다 그려。경재씨』

『들어 오라고 해요、글세』

『당신이 그리시구려』

현옥이도 독이 올랏다。

『웨 일보는 사람을 나가라고 합니까?』

『조끔 얘기가 잇서요……』

『무슨 얘기에요。얼른 말하시우』

『경재씨 부러 얘기 해보서요 속여만 처바아 두지 말고……』

『난 아무 얘기도 업소』

『웨 말을 못하서요』

『……』

『다 알어요……! 아무때라도알게되구야 말걸、웨 진작 얘길 못하서요? 감추면 누가 모를나요』

『그게 그래、남보다 생각이잇다는 양반이 할일이란말요』

『흥、도적질이요?……어서서 도적질하는거야 할수업지요』

『……』

『감추긴 뭘 감춰요? 누가도 적질 해단말요』

『하구 안허는건 또 뭐란말이요』

『나한테 물어야 일일이요? 그게요』

『쓸데 업는 소릴 말구、얼른 들오래시우』

『속이 압흔 양반이 그리시구려。누가 그런 심부럼하러왓다요』

『그럼 웨 일하는 사람을 나가래요? 얘긴얘기구……우린놀려온 사람、아니우、놀려온 사람이、되려사무보는사람을……』

『그런짓 하면 인제 정말 나가구 말걸、어디 두고 보지』

경재는 그만 떠 말치안코 차가듯이 모자를 집어들고、마치、모든 불순한 환경에서 여진 현옥의 우월감을 차버리듯이 성큼 성큼 걸어나와 버렷다。

『경재씨!』

현옥이도 따라나왓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때 마즘 어더 갓다가 돌아오는 사장과 바루 문압해서 마조첫다。

『웨들 가?』

그래나 경재는 약간 인사만 하고、그대루 지나처버리고、현옥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도루 사무실로 들어갓다。